

인터넷 동화상으로... CD로

범패의 진수 '만깍'

법현님 2년 작업... 전통불교음악 이해 한몫 영어등 4개 국어로 번역 '범패로 불교포교'

전통 불교음악인 범패와 불교무용을 인터넷 동화상으로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 또 구해·일운(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준보유자), 동희·효성·법현(영산재 이수자) 스님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 5명의 소리가 수록된 '한국의 범패시리즈' CD 1집과 2집이 나와 범패의 보존과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범패 CD를 내고 범패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주역은 동국대 국악

과 교수이며 영산재 이수자인 법현 스님. 2년전부터 범패의 인터넷 작업을 해온 스님은 "불교음악에 관한 모든 논문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1년에 서너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범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패 홈페이지에는 각의식 파트부분으로 나누어 △범패란 무엇인가 △범패의 기원 △범패의 기능, 특징 △나비무 바라무 범고무 등 범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코너가 따로 있어 △영산재란 무엇인가 △영산재의 구성·작법무 분구 도량과 장엄 △영산재 의식·진행절차 △범원사 영산재보존회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범패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의식 코너에서는 불교의식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하여 지는가 하는 분류 및 개설, 상주권공재 각배재 영산재 생전예수재 수록재 등에서 불리는 범패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놓았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총 2기가 바이트의 범패 동영상도 제공되며, 이 가운데 일부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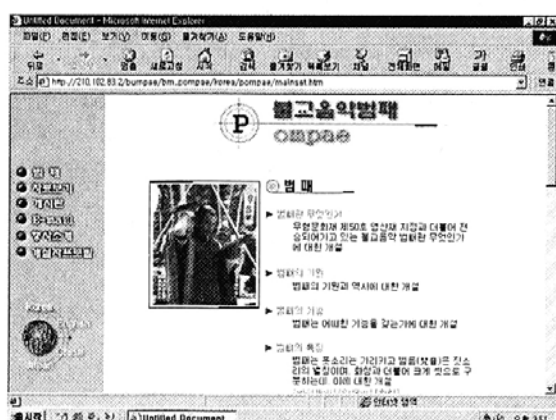
(가져오기)를 해야 한다. 동영상은 3가지 리얼 오디오로 작성돼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으로도 제공된다. 법현스님은 "불어와 독일어로도 작성해 한국범패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한다.

한편 이번에 나온 범패 CD 제 1집 '산사의 향기'에는 향화계 북청

계 다계 요잡 등 6곡이, 2집 '무지개 소리'에는 '북청계' '괴경작법' '도량계' '범발' '범고무반주가락' 등 8곡이 들어있다.

이번 음반은 영산재 인간문화재인 송암스님(봉원사)의 자문을 받아 제작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전통불교 의식인 영산재 등 범패의 무용을 인터넷 동화상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 '범패'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구운몽, 금강경 문학적 응용 사씨남정기, 화엄경이 모티브"

설성경교수 '서포소설의 선과 관음' 펴내

16세기 말 최고 지식인 서포 김만중. 그의 소설속에는 불교의 진리까지 수용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 불교사상을 소설의 핵심 모티브로 삼았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대중들의 이념적인 삶을 담아냈다. 서포의 대표작 소설인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의 저변에 있는 불교 사상중 특히 선과 관음과의 관계를 찾아내어 두 소설이 지향하는 세계를 밝힌 책이 나와 흥미를 끈다.



설성경(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펴낸 <서포소설의 선과 관음>(장영각 펴냄)은 선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온 선문화 역사에 소설에서도 선의 경지를 서사체계로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구운몽>을 통해 전통적 문형식을 진일보시켜 선의 경지를 서사체계로 형성하는 선문의 형식을 창안함으로써 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소설에서 선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육관대사와 성진이 펼치는 무언의 대화는 변형된 선의 문답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사씨남정기>는 발단에서 유씨와 사씨의 결연은 관음화상의 찬시 인연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 속에서 사씨는 관음보살과 흡사한 자비의 상을 갖춘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서포는 <구운몽>에서는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진술하는 원리를 문학적응용했고, <사씨남정기>에서는 <화엄경> 입법계종의 선재동자 남정기 특히 수월관음도의 모티브를 사씨의 남정기로 변형시켰다. 그러나 <사씨남정기>는 구운몽과는 달리 불교문화에 대중 신앙에 기대어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두 작품에서 각기 다른 수준으로 차용된 불교사상 등을 비교해 보면 흥미를 더해 준다.

이 책에서는 '선과 관음'이라는 주제하에 서포 소설의 창작 계기가 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유학자가 어떻게 불교를 이야기를 하는가 등 유교와 불교이야기의 원형적 조화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삼존불등 한국회화 11점 佛 기메박물관서 복원

2000년 한국실 개관 예정인 프랑스 기메박물관이 5년간의 작업 끝에 최근 한국회화 11점의 복원을 마쳤다. 복원된 회화는 아마타삼존불, 감로량화, 신중탱화, 풍속화 등으로 그동안 박물관 수장고에 쌓여 있었다.

이들 작품이 빛을 보게 된 것은 기메박물관이 지난 93년 한국실 개관을 계획하고 한국실 담당 큐레이터로 피에르 캄봉을 임명하면서부터. 주한 프랑스문화원에 근무한 바 있는 캄봉은 일본·중국 수장고에서 작품들을 찾아냈다.

캄봉은 복원작업이 5년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작품 속에 담긴 정신과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복원작업은 한국의 지원으로 외국 박물관에서 유물을 복원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유명 록그룹이 부르는 찬불가

21일 결식아동돕기 페스티벌 그룹 '카르마' 결성 기념무대도

8일 대전서 '아미타' 공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과 대전에서 전문 록그룹사운드의 찬불가 공연이 잇달아 열리는데 찬불가 포교 열풍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1일 오후 7시부터 올림픽공원내 제2체육관에서 '부처님오신날 불국 결식아동돕기 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불자탈렌트 김민중과 미스코리아 출신 이영현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연에는 김경호를 비롯해 그룹 부활, 시나위, 신촌블루스, 할리퀸, 카르마(karma) 등 정상급 록가수들이 출연해 카르마가 작곡한 찬불가와 록 음악 등을 연주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록그룹 '카르마' 탄생을 축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4인조 록그룹인 '카르마'는 보컬 김지웅, 기타 이호준, 베이스 영재민, 드럼 김태운 등 탄탄한 연주와 가창력이 풍부한 신세대 불자음악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작곡가 유승엽(신기회 대표)씨는 "청소년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록음악이 찬불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6시 대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찬불가 전문 록그룹사운드 '아미타'가 자작곡과 편곡된 찬불가 등 40여곡을 발표하는 음성공양 법회를 갖는다.

충남 논산 안암시장(주지 법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록그룹 '아미타'는 드럼과 전자기타, 신디사이저 등 6명으로 구성돼 98년 6월 창단한 이후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 '아미타'는 12일 제천 황룡사 법회를 비롯 15일 부산연합 제등행렬 식전행사, 29일 경주불교문화대제전 등의 일정으로 순회 공연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묘향산·금강산 등 5곳 북한, 세계유산 등록 희망

북한이 8만대장정이 보관된 묘향산, 금강산, 고려시대의 고적을 포함한 개성시 등 5개소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교외의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 4월24일부터 북한을 방문했던 히라야마 이쿠오씨등 유네스코 대표단은 귀로에 베이징에서 4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북한의 송석환 문화차관은 "고구려 고분군과 함께 묘향산, 용문대굴, 금강산, 개성시, 평양시 등을 등록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

대표단은 고구려 고분의 내부와 주변에 앞으로 1년간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기자재를 설치했는데, 북한은 이 자료를 토대로 내년 7월에 세계유산의 예비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욱 기자

동국불교미술인회 '부처님일대기전'

문화 단신

6일 동국문화예술제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진형)가 부처님 일대기를 주제로 제4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공평아트센터 1층에서 가졌다.

개막식에는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원서스님(호계원장), 원택스님(총무부장), 양산스님(문화부장),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장총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찬수(목야불교박물관장), 신승수(문화재기능인협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사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운식·사진)은 6일 오후 7시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예 예술극장에서 제3회 동국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새 천년을 문화예술의 시대로'를 주제로 문화예술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이 펼치는 1부는 기악합주와 범패 공연이 어우러지는 '영축산의 환희', 시나위와 대금연주의 '찬탄의 향연', 관현악연주와 안숙선 명창의 관소리 한마당이 펼쳐지는 '어울림의 극치', 김영익씨의 화심곡과 민요 '참회의 아름다



움' 등으로 이루어진다. 2부는 단막극 '융합의 미학', 가요명창인 '범패의 향기', 승무와 교방무 등 '환희의 범패', '불교가요' 등으로 꾸며진다. 입장료는 무료. (02)2260-3607

불교방송 9돌 초대전

불교방송 개국 9주년 축하 및 후원금 마련을 위한 청량 김용대회백 초청 달마불화 전시회가 10일~15일 불교방송 지하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김화백이 독수리와 달마대사를 주제로 그린 16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김화백은 "이번 전시회는 인연한 모든 사람들의 화목한 가정과 건강, 행운을 발원하며 작업을 해나갔다"고 말했다.

즐거움 책임기, 생각하는 책임기 - 늘푸른소나무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의 그림이 있는 에세이

참 좋다. 정말 좋구나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인생이야기가 우리곁에 왔습니다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는 스님...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만사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스님...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이 삶의 기쁨을 드립니다.

수안스님의 작품 57점을 정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 좋다. 정말 좋구나》 출판기념회 및 저자사인회
· 5월 19일(수) · 오후 6시 · 출판문화회관 강당 (독자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61-3 남산빌딩 2층 늘푸른소나무 / 전화 (02)2276-0290 / 팩스 (02)2276-0295